다시보는
불모지

❼ 불교 애니메이션 A TO Z



사진 왼쪽부터 한국에서도 극장 개봉된 애니메이션 '붓다: 위대한 여정' 포스터,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표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한 장면,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의 한 장면. 모두 불교 소재거나 불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이다.

애니 속 '불교 코드' 찾아보실래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의 신성민입니다.

연말연시인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서 힘드시죠.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볼 만한 불교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불교 애니메이션을 구분해보면 대략 불교 소재 애니메이션이나 불교적이거나 불교로 해석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불교 소재 애니메이션을 꼽자면 단연 이 작품이죠. 바로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입니다.

데즈카 오사무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주소년 아톰〉으로 잘 알려졌죠. 40대 이상이라면 TV서 만났을 〈밀림의 왕자 레오(원제: 정글대제)〉 〈사파이어 왕자(원제: 리본의 기사)〉 등의 만화영화가 모두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입니다.

데스카 오사무가 이 같은 소년만화만 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데스카 오사무는 한 때 의학도였던 관계로 〈블랙잭〉과 같은 의학만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불교에 심취해 〈붓다〉 〈불새〉와 같은 불교 소재, 불교적 만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붓다〉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서도 개봉한 바 있죠. 2013년에는 〈붓다: 싯다르타 왕자의 모험〉이, 2015년에는 〈붓다: 위대한 여정〉 이렇게 두 편이 개봉됐는데요. 1편의 원제는 '붉은 사막이여 아름답게' 였는데 한국은 '싯다르타 왕자의 모험'으로 바뀌었죠. 요즘 말로 작명 센스가 참 괴랄하죠.

어쨌든 원래 3부작이었다고 하는데 흥행 성적이 썩 좋지 않았는지 3편 이야기가 없네요.

원작 스토리야 다 아는 부분이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데즈카 오사무 원작의 느낌이 크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1편은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없지만 2편 '위대한 여정'은 네이버 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도 정식 발간된 만화 〈붓다〉 전집을 읽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 중 〈붓다〉보다 더 대단한 작품은 만화 〈불새〉인데요. 그의 마지막 작품인 〈불새〉의 주제는 인간의 삶입니다.

작품은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가 불멸의 존재인 〈불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루고 있죠. 시간과 공간도 고대부터 미래시대까지 지구와 우주를 오가며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작품 속 불새가 인간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불새를 발견한 이들은 때로는 영생을 얻고자 때로는 권력이나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지식을 위해 불새를 쫓고 제각기 자신들의 운명과 마주합니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흐트러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어가는 다양한 일들이 불새라는 존재와 엮여서 펼쳐지며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애니메이션으로 극장판 〈불새: 봉황편〉이 있는데 한국에는 정식 개봉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네요.

이제 불교로 해석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해볼게요. 20세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꼽으라면 단연 이 사람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만으로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복귀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취향이니 태클은 사양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제야 말로 거장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이 작품은 매우 불교적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죠.

낯선 세계에 홀로 남겨진 치히로가 마녀 유바바를 만나 이름을 빼앗기고 일하게 되는 곳은 '유옥'입니다.

유옥(油屋), 우리말로는 '기름집'이죠. 다시 말해 '불타는 집'입니다. 이는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죠. 화택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우비고뇌(憂悲苦惱)로 점철된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을 태우는 불길은 지배욕이나 소유욕과 같은 '욕망'과 '집착'입니다.

유옥은 신들이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세속적 공간이죠. 도마뱀 고기에 환장하고 사금을 보며 열광하는 종업원과 항상 돈을 세는 유바바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 **'센과 치히로' 주무대 유옥, '삼계화택' 의미해**
> **터닝포인트인 늪지대로 가는 열차 이름 '中道'**
> **'붓다' '은하철도999' 등도 불교 애니 분류 가능**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은 치히로입니다. 목욕탕의 때를 벗기고 약수를 길어오죠. 오물신을 강의 신으로 정화시킨 것도 치히로였죠.

작품의 터닝포인트는 치히로가 유바바의 쌍둥이 언니 제니바를 만나면서입니다. 제니바를 만나기 위해서는 갔으나 오지 않는 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 기차의 이름은 '중도(中道)'입니다. '중도' 열차의 종착역엔 현인 제니바가 있었죠.

여기서 치히로는 제니바에게 센이 아닌 자신의 본명을 말합니다. 그러자 제니바는 좋은 이름이라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리면 유바바에 자신의 이름 '치히로'를 빼앗기고 '센'이 됩니다. 치히로가 한문으로는 '일천 천(千)'에 '찾을 심(尋)'인데 유바바는 '찾을 심'을 빼죠.

자신의 이름은 곧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이유죠. 나를 잊지 않고 본래의 나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치히로라는 어린 소녀는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미야지키 하야오 작품은 자본주의나 문명비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불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령공주〉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이 그렇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은 대부분 넷플릭스에 볼 수 있으니 찾아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밖에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곤 사토시의 〈파프리카〉도 불교적인 작품입니다. 곤 사토시는 지금은 작고해 더 작품이 나오지 않지만 〈퍼펙트 블루〉, 〈망상대리인〉도 불교적 해석이 가능한 작품들이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어릴 적에 보았던 〈은하철도 999〉입니다. 〈은하철도 999〉도 불교적 해석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기계인간이 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여행을 거듭하는 철이와 메텔의 여정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의 구도기와 흡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이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현실 앞에 분노하고 스스로 레지스탕스가 돼서 기계제국과 싸워 나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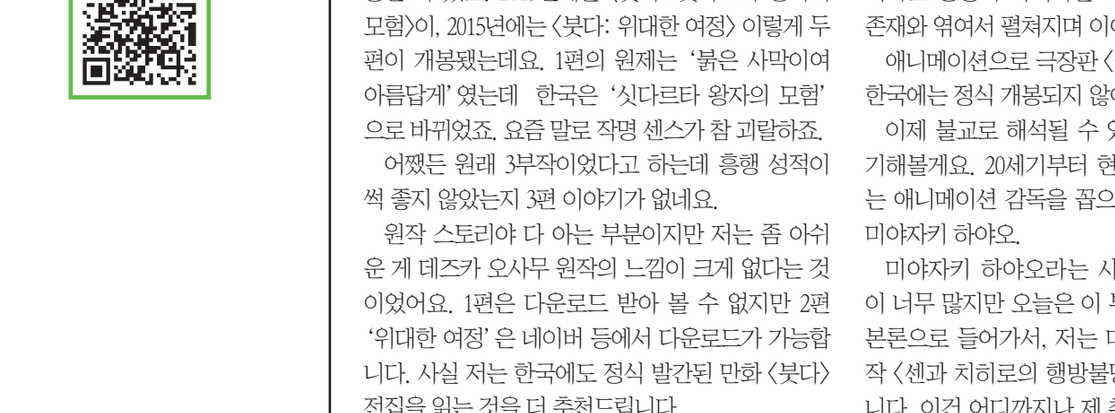
결국 철이는 자진해서 기계인간이 된 아버지 파우스트와 마지막 일전을 벌이고 승리하며 마무리됩니다. 여정 끝 철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청년으로 성장하죠.

소개할 작품은 많지만 시간과 능력에 한계가 적지 않네요.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불모지는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콘텐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끝〉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